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Peer Counseling Program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변상해, 김세봉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Byun Sang Hae(jm9004@suv.ac.kr), Kim Se Bong(kwtsb@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A시에 소재한 C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연구에 참가를 희망하는 16명을 모집하여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검사 검정과 사후 검사 검증,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내 사전-사후 검증에 대해서는 비모수적 통계인 Mann-Whitney U test와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사회적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여겨지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중심어** : | 또래상담 | 고등학생 | 의사소통 | 사회적 효능감 |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is aimed to observe the effects on the peer counseling program which can increase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do the present research, I have taken 16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 to join to this research, within A city. I have separated those students into two groups: an experienced group of 8 students and a controlled group of 8 students. Mann-Whitney U and Wilcoxon Signed Ranks test were adopted to analyze collected data from the peer counseling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the level of communication skills have been increased after peer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 of the experienced group, and the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also have been increased after peer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 of the experienced group. This result showed that, the peer counseling program could stimulate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efficacy of experienced group significantly comparing with the result of the controlled group. From the result I have confirmed that, the peer counseling program have positive effects to increase the high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efficacy.

■ **keyword** : | Peer Counseling | High School Students | Communication Skills | Social Efficacy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시기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개척하고 설계하며 사회·국가적으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많은 혼란과 동요를 겪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지나친 경쟁, 컴퓨터 통신의 활용으로 인한 또래친구들과의 대화 상실 등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의사소통을 서툴게 한다[1].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 속에서 집단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효능감이 떨어져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원만한 교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학생들은 학업 면에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래들로부터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충격을 받아 학교를 떠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우간의 적절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학생들은 성인기에 이르러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범죄나 비행을 일으키기 쉽다[2].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신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사회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3] 학교상담의 일종으로 또래상담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생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또래가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력하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4]. 또래 상담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또래관계를 통해 해결하

는 경향이 크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둘째, 학교 교실 등과 같이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또래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어 또래들에게 영향을 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셋째, 또래상담 훈련과 활동 과정에서 또래 상담자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5].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또래상담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으로 취약해진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키고,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켜 친밀한 교우관계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건전한 인성 발달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연대감과 유대감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한 교육적 활동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또래상담 프로그램 적용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대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평가에 관한 실험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봄으로써 또래상담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에게 적용한 후 또래상담자들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의사소통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사회적 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또래상담

1.1 또래상담의 정의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Vriend가 낮은 학업 성취 수준의 학생들과 또래들과의 상담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또래상담은 학문적 연구에 기초하였다기 보다는 상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달되어 왔다[6].

구본용[7]등은 또래상담에 대해 “특별히 훈련받은 재학생이 지도자가 되어 소수의 정상적인 동료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의 과정”, “긍정적인 자아개념,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법, 명료화된 가치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법을 배운 집단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자원들을 다시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르치는 집단상담”, 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볼 때,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 생활경험, 가치관을 지닌 또래가 일정한 훈련을 받고 또래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며 학업, 인성, 행동 등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전문적인 조력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2 또래상담에 관한 선행연구

또래상담은 1960년대 이후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Gay와 Tindal[8]은 또래상담은 다른 사람을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전문가들이 취하는 다양한 대인적인 조력활동이라고 하였다. Lombardi와 Carek[9]은 또래상담은 연령차가 3살 이내인 또래학생이 다른 학생의 개인문제나 직업문제, 학교적응 문제 등에 관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May와 Rademacher[10]은 학교장면에 국한하여 또래상담을 특별히 훈련받은 동료학생이 다른 동료학생의 학업, 인성, 행동을 조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정숙[12]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훈련을 실시한 결과, 또래상담 훈련이 인간관계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만 민감

성, 이해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가영[13]은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경험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데 효과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2. 의사소통

2.1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접촉하는 환경과 사람들에 대하여 느끼고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삶의 한 과정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심리적 상호관계인 대인관계는 의사소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된다.

Bienvenu와 McClain[14]은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점차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느낌과 의미를 상대와 교환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Gross와 Knool[15]은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황은[16]은 의사소통은 한 개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성인사회에서는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그가 포함된 모든 관계에서 효율적인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하면, 의사소통은 개인들 간에 의미 있는 상징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2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

의사소통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숙[17]은 중학생의 또래상담자 훈련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기술에 미치는 연구 보고에서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또래 상담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또래 상담자 자신의 성장과 일반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은미[1]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보고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황미숙[18]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두 가지 하위영역 중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3. 사회적 효능감

3.1 사회적 효능감의 정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해석되는 사회적 효능감이란 그 개념과 영역이 광범위하여 각 사회 및 문화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회나 같은 문화 체계 내에서도 연령, 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Anderson & Messik[19]은 사회적 효능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대인관계의 목적을 획득하는 능력이며 인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한다. Hartup[20]은 사회적 효능감을 유아가 또래들과 원만하게 사회적 상호 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손경미[2]는 사회적 효능감이란 사회적 능력과 비슷한 의미로서 사회성 발달, 사회적 유능감,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개념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나 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사회적 효능감이란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타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타인의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이라는 공통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3.2 사회적 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적 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수진[21]은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에서 자아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자아효능감이 높

은 학생일수록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기도나 지도력이 높다고 하였다. 손경미[2]는 과제해결 전략 사용에 대해 학생과 성인간의 상호작용과 연령이 같은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성인이 사용하는 전략기술을 어렵게 느껴서 학생과 성인간의 상호작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성인 또는 차이가 큰 유능한 또래보다는 동등한 지위와 능력을 지닌 친구가 또래의 상대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영원[22]은 사회적 기술훈련이 지체부자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손윤경[23]은 신체접촉 놀이 활동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력 증진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사회적 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박수린[24]은 K-PATHS(Korean version -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프로그램이 학령 전기 유아의 정서지능의 I‘정서 인식과 표현’, III‘정서적 지식 활용’, IV‘정서의 반영적 조절’ 영역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프로그램은 A지역의 C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의 증진을 희망하는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게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별 평균차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표 1]과 같다.

표 1. Research design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O ₁	X	O ₂
Control	O ₃		O ₄

*표설명 : X : 또래상담 프로그램
 O₁ :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O₂ :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O₃ :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O₄ :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2.2 프로그램 실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1회씩 11주간 총 11회, 회기 당 60분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실험 실시 기간 동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2.3 적용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또래상담 훈련을 하기 위하여 준비단계(1단계), 기획단계(2단계), 훈련단계(3단계), 활동지도 단계(4단계), 평가 단계(5단계)의 5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그 중 또래 상담 훈련 단계에서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와 대상자 선정을 한 후 선발된 학생들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실험집단은 주1회 회기 당 60분씩 11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매회기는 전시간 학습한 내용 환기, 목표제시, 강의 및 시범, 연습, 평가 및 토의의 순서로 진행하였는데 연구자는 실험 집단구성원들에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집단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회기의 학습내용은 다음 회기까지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한 느낌을 강의 시작 전 발표하게 하였다. 매회기 제목과 목표는 [표 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회기별 주제

회기	제목	목 표
1	들어가기	집단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동기를 높인다.
2	친구의 의미 생각하기	집단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며 “친구”의 의미를 다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3	친한 친구되기 I	자신의 친구관계 양상을 살펴보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다.
4	친한 친구되기 II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본다.
5	대화하는 친구되기 I	대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의사소통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6	대화하는 친구되기 II	대화에 있어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7	대화하는 친구되기 III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수동적으로 억압하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고 다양한 질문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방법을 익힌다.
8	대화 종합연습	대화를 잘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을 배우고 연습하였는데, 이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연습해 보고, 습득이 잘되었는지 점검해본다.
9	또래상담자 자기관리	또래상담자가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를 인식시키고 유의사항을 주지시킨다.
10	도움을 주는 활동 찾기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찾아봄으로써 또래상담자의 활동 영역을 점검한다.
11	마무리 및 평가	그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느끼고 생각한 것을 나누고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개인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연구진행과정

3.1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2009년 3월 18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된 16명 전원에게 의사소통기술, 사회적 효능감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이며 현장에서 모두 회수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고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3.2 실험처치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된 실험집단 17명에게 2009년 3월 25일 ~ 7월 4일까지 매주 1회씩 60분간 11주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8명은 이형득(1992)¹⁾의 친밀하고 수용적인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5-15명의 범위와 13명의 초등학생 실험집단으로 현실요법을 연구하여 효

1 이형득, 「집단상담의 사례」,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2), pp.56-87.

과성을 검증한 정종진, 조미숙(2002)²과 10명의 초등학교 생 실험집단으로 현실요법을 연구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노수현(2002)³을 근거로, 5학년 8명과 6학년 9명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시간과 기간은 이장호(1998)⁴의 집단상담의 효과성이 인정되는 기간과 허승희(2001)⁵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11회기 60분의 집단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1회당 1시간씩 11주간 총 11회(11시간)로 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3.3 사후검사

다.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2009년 7월 4일 11회에 걸친 프로그램 시행 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도 동일한 시기에 수행하였다.

4. 연구도구

4.1 의사소통

본 연구에 사용된 의사소통 척도는 한종혜[25]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재 제작한 의사소통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검사는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랐으며 개방적 의사소통 9문항, 역기능적 의사소통 11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 전체의 신뢰도는 .73으로 대체적으로 안정된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4.2 사회적 효능감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효능감 검사는 심상욱[26]이 수정 보완한 총 5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본 검사의 하위영역은 공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관계형성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효능감 검사지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처리는 리커트 5척도에 따랐으며 검사지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84이며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12.0을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 alpha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검사 검정과 사후 검사 검증,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내 사전-사후 검증에 대해서는 비모수적 통계인 Mann-Whitney U test와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의사소통 결과

1.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의 Mann-Whitney의 U 점수와 Z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기 위해 유의확률을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 사전검사 결과

척도	Mann-Whitney의 U	Z	p
개방적 의사소통	26.500	-.579	.574
역기능적 의사소통	32.000	.000	1.000
의사소통	30.500	-.159	.878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 점수와 하위영역인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의사소통에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1.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에 효과가

2 정종진, 조미숙, 전계논문, 2002, pp.291-319.

3 노수현,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1, (2002), pp.87-101.

4 이장호, "상담 연구 방법론의 확장", 「심리학의 연구문제」, 5, (1998), pp.193-229.

5 허승희, 전계서, 2001, pp.53-55.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 사전-사후검사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의사소통 사전-사후검사 결과

	척도	구분	N	M	SD	Z(p)
실험집단	개방적 의사소통	사전	8	28.50	4.309	-2.371 (.018)*
		사후	8	33.87	2.474	
	의사소통	사전	8	22.87	4.793	-2.536 (.011)*
		사후	8	31.00	5.042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전	8	51.37	3.543	-2.386 (.017)*
		사후	8	58.12	4.580	
통제집단	개방적 의사소통	사전	8	27.37	3.700	-.423 (.672)
		사후	8	26.87	5.591	
	의사소통	사전	8	23.00	4.472	-.431 (.666)
		사후	8	24.00	4.472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전	8	50.37	6.566	-1.689 (.091)
		사후	8	45.37	6.588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의사소통의 전체적인 점수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들을 살펴보면,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인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효능감 결과

2.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효능감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의 Mann-Whitney의 U 점수와 Z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기 위해 유의확률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효능감 사전검사

척도	Mann-Whitney의 U	Z	p
공감	29.000	-.319	.798
자기통제	29.000	-.319	.798
자기표현	29.000	-.316	.798
관계형성	27.500	-.478	.645
사회적 효능감	29.500	-.263	.798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효능감 점수와 하위영역인 공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관계형성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사회적 효능감에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2.2 사전-사후검사 결과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사회적 효능감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 사전-사후검사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사회적 효능감 사전-사후검사 결과

	척도	구분	N	M	SD	Z(p)	
실험집단	공감	사전	8	45.37	5.680	-2.252 (.024)*	
		사후	8	51.75	4.464		
	자기표현	사전	8	24.00	1.851	-2.524 (.012)*	
		사후	8	33.37	4.533		
	사회적 효능감	사전	8	65.00	8.263	-2.552 (.011)*	
		사후	8	71.50	7.309		
	자기통제	사전	8	45.00	3.625	-2.316 (.021)*	
		사후	8	52.25	3.770		
	관계형성	사전	8	179.37	12.993	-2.521 (.012)*	
		사후	8	208.87	10.736		
	통제집단	공감	사전	8	45.12	4.580	.000 (1.000)
			사후	8	45.25	6.943	
자기표현		사전	8	23.37	2.503	-1.407 (.159)	
		사후	8	25.75	3.370		
사회적 효능감		사전	8	63.87	7.180	-.780 (.436)	
		사후	8	65.12	5.249		
자기통제		사전	8	45.87	2.587	-.254 (.799)	
		사후	8	45.25	5.625		
관계형성		사전	8	178.25	13.199	-.254 (.799)	
		사후	8	181.37	16.317		

* $p < .05$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회적 효능감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사회적 효능감의 전체적인 점수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의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공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관계형성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회적 효능감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인 공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관계형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본 연구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여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각각 8명씩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에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3]과 [표 6]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의 사전 검사 결과에 의해 동일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에서 의사소통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들에서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고,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에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실험집단 내의 사전-사후검사에서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들에서도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추석호[27]는 고등학생 또래집단 상담자에게 공감하기, 온정표시, 자기노출을 훈련시킨 결과 이들 피험자들이 의사소통 기술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김광은[28]은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또래집단 상담자 훈련을 실시한 결과 피험자들의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건자[29]는 또래상담훈련이 중학생들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은미[1]는 초등학교생들에게 또래상담훈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능력과 자아개념 간에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황미숙[18]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두 가지 하위영역 중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낮아졌다고 보고하여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이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요인을 살펴보면,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은 연령이나 기타 다른 여건 등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 욕구좌절, 불안, 고민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깊은 일체감과 친밀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사회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에서 사회적 효능감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효능감의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공감과 관계형성 점수에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자기표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p < .05$)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 내의 사전-사후검사에서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의 하위영역들에서도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사회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McGrath[30]의 구성원들이 의존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활동이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손경미[2]는 사회적 효능감을 단독수행과 같은 능력 수준의 또래협력, 다른 능력수준의 또래협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능력수준의 또래협력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적 효능감이 월등히 증가 하였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상욱[26]은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체부자유 청소년의 사회적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서정숙[3]도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은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공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관계형성의 사회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였다.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이 사회적 효능감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요인을 살펴보면,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건전한 또래관계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므로 참가자들에게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목적을 획득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인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A시에 소재한 C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연구에 참가를 희망하는 16명을 모집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사회적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여겨지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의사소통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실험에 참가한 각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학교환경 등의 다양한 변수가 실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은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의사소통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 손경미, “패턴블럭활동에서의 또래협력이 유아의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3] 서정숙, “또래상담 훈련이 인문계 여고생의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4] 이해성, 박재황, 김진희, 이상희, 노성덕, “또래상담 운영 방안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한국청소년 상담원, 1999.
- [5] 김경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남녀중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 구분용, 구혜영, 이명우,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4.
- [7] 구분용, 김용태, 이재규, 박한샘, 공윤정, 청소년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II,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 [8] H. D. Gay and J. A. Tindall. *Peer Counseling: An in-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Muncie: Accelerated development Inc., 1978.
- [9] J. S. Lombardi and R. Carek. "Making the helping network for stud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 pp.367-368, 1978.
- [10] R. J. May and B. G. Rademacher. "The Use of paraprofessionals as environment assessors in student affairs agenc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1, pp.368-369, 1980.
- [11] 양가영,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경험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2] 고정숙, “또래상담훈련이 자존감 및 인간관계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3] M. J. Bienvenu and S. McCla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pp.344-345, 1971.
- [14] I. H. Gross and M. M. Knool. *Managemant for Modern Family.* Ea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80.
- [15] 이황은, “또래집담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6] 김미숙, “중학생의 또래상담자 훈련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기술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7] 황미숙, “또래상담활동이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생활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M. Anderson and S. Messick, "Social competenc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pp.282-293, 1974.
- [19] W. W. Hartup,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implications and interaction in same and mixed-age situations," *Young Children*, Vol.32, No.5, pp.4-13, 1977.
- [20] 강수진,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1] 신영원, “사회적 기술훈련이 지체부자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2] 손윤경, “신체접촉 놀이 활동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신체접촉 놀이 활동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3] 박수린, “K-PATHS(Korean version -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프로그램이 학령 전기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4] 한종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25] 심상욱,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체부자

유자의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26] 추석호, “동료집단상담 장면에서 의사소통 기술 훈련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27] 김광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 사 관행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28] 박건자, “또래상담훈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관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9] C. A. McGrath, *The Therapeutic Powers of Play*, NJ: A Jason Aronson, 1984.

저 자 소 개

변 상 해(Byun Sang Hae)

종신회원



- 2006년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사회복지상담학과장)
- 2007년 : 백석대학교 대학원 상담학박사(가족상담전공)
- 2006년 :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사회복지학전공)

<관심분야> : 가족상담, 사회복지, 인사조직

김 세 봉(Kim Se Bong)

정회원



- 2010년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상담학 박사(청소년상담전공)
- 2009년 : 고양가정폭력상담소 전문상담위원

<관심분야> : 청소년, 사회복지